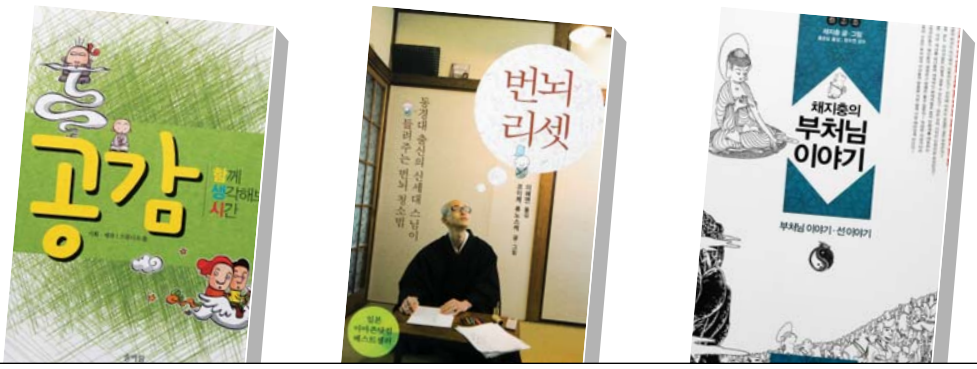


불교, 만화와 만나 낄낄대다

눈길 끄는 '공감' '번뇌 리셋' '부처님 이야기'



인터넷이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사람들은 전보다 더 쉽게 만화를 접하고 있다. 인터넷 만화인 웹툰(webtoon)의 경우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불교계 출판시장에도 만화를 접목한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 내용을 담은 저작들은 대부분 한자가 많이 섞여 있거나,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어 읽는데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최근 발간된 <공감> <번뇌리셋> <부처님 이야기> 불교경전 이야기는 만화를 통해 불교의 내용을 함축적이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 세 권의 중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을 고르려면 우선 <공감>이다. 불교의 이야기를 직접적

으로 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일상의 이치를 짙막한 만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어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들에게 생각의 실타를 마련해 주며,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책은 읽는 순간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책은 단숨에 읽기보다 생각이 날 때 마다 한 번씩 꺼내 조금씩 읽어보면 좋은 이야기들이다. 80편 이야기들은 그마다의 교훈을 담고 있어 만화적 재미와 인생의 이치를 함께 공감하게 한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세상은 좋은 말이 없어서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말은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지러운 것"이라

고 말한다. 짧은 만화로 인해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매력이다.

<번뇌 리셋>은 만화 설법이다. 도쿄의 계프도쿠지의 주지로 있는 저자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가출공간' (<http://fede.cc/>)에 직접 그린 만화 에세이를 올리게 되면서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알려지게 됐다.

평소 연필과 색연필을 이용해 만화를 그리면서 불교에 대해 이야기 해온 스님의 설법은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기게 만든다. 스님이 그린 네 컷짜리 만화는 설명이 따로 없어도 불교의 근본 주제인 마음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

단순히 만화만 즐겨 봐도 좋고, 책의 중간 중간에 덧붙여진 마음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읽으며 책장을 넘겨도 좋다. 번뇌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았던 초보불자라면 개념 잡기에 좋은 책이다.

본격적으로 부처님과 불교에 대해 알고 싶다면 <채지총의 부처님 이야기> 불교경전 이야기를 추천한다. 저자인 채지총은 대만의 국민 만화가이다. 수십 년간 공자·맹자·손자 등 어려운 중국 고전을 쉬운 만화로 풀어 소개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세계 40여 국에 그의 책이 소개되며, 동양 사상을 전파하는데 힘썼다. 채지총의 대표작인 <장자 이야기>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채용될 만큼 완성도가 뛰어나다.

그는 11년에 걸쳐 <법구경> <반야심경> <육조단경> <부처님 이야기> <선 이야기> 등 불교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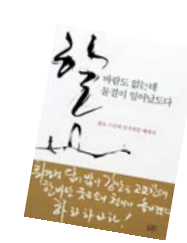
시리즈를 발간했다. 그 동안 국내에서 정식 계약이 되지 않아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계기로 해 채지총의 불교만화를 볼 수 있다. 불교를 이해하는 입문서로 좋은 책이다.

- 공감스튜디오 등 제작·출판 펴냄 11만2000원
- 번뇌리셋코이케 류노스케 글·그림|이혜연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 11만3800원
- 채지총의 부처님 이야기·채지총의 불교 경전 이야기 채지총 글·그림|홍수도 옮김|김영사 펴냄 2권 각 1만6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 신간 도서

할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있어났다가



저자인 월호 스님은 성품은 디지털식으로 단박에 봐야 하며, 마음은 아날로그식으로 꾸준히 뒤야 한다고 말한다. 월호 스님은 조선 후기 청허 휴정 스님의 대표 저작인 <선가귀감>을 불교 공부하는 이들의 자세와 승풍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해설했다. 삶이 절대 신이나 부처의 소유물이 아님을 거듭 역설하며 스스로를 다듬을 수 있다는 월호 스님의 맑은 무언가에 의지하려고만 하는 현대인의 해이해진 영혼에 일침을 월호 지음|조계종출판사 펴냄 11만3000원

붓다 이야기



해탈은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남을 말한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평정심을 깨뜨리는 '독'이 된다. 그리고 이 길은 상당한 수행 위에서 비로소 체득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저자는 열반은 모든 번뇌의 불길이다 다 꺼진 상태로, 해탈의 다른 이름이다. 붓다는 이들 세 가지 독이 되는 마음에 불들리지 않고 모두를 놓아버린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영성 지음|학고방 펴냄 11만원

윤회와 행복한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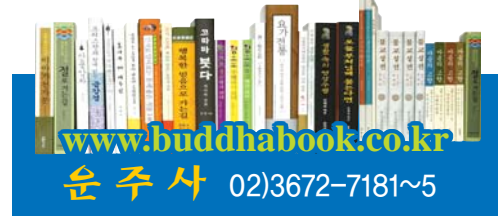


업과 윤회, 연기의 가르침을 여러 초기경전과 아비담마, 그리고 <청정도론>에 바탕해 윤회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윤회의 원리와 구조를 분명히 이해하면 어떤 삶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고 어떤 삶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지에 대해 바른 견해를 확립할 수 있다. 팔정도 실천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윤회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인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일목 지음|이출 펴냄 11만3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정찬주
3	소설 무소유	정찬주	불교신문사
4	술집 사이 바람소리	무비 외	불교신문사
5	그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금강 외	마음의 숲
6	완역 티베트사자의 서	중앙	정우서적
7	사는 즐거움	보경	들
8	붓다 브레인	릭 헨스	불광출판사
9	초기불교이해	각목	초기불교연구원
10	굿바이 티베트	M. 블루먼코프	해안연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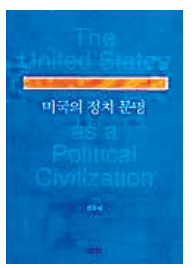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윤남진 리뷰



'중국의 내일을...' 문정인 지음



'미국의 정치 문명' 권용림 지음

미국과 중국, 이들이 바로 오늘날 G2다. 유럽은 늙었고, 일본은 길을 잃었고, 인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태어난 이상 이 두 나라를 잘 알지 않고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슬기롭게 개척하기 어렵다. 그것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 지식파워나 인재파워 같은 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바탕이 되는 내면적 가

치관, 그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종교 지형은 미국의 종교 동향과 중국의 종교 지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보수주의적 교파와 한국 교회의 관계,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불교의 활용과 같은 현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만 해도 누구나 쉽게 그런 예측을 할 수

이 직접 실행한 신정일치 즉 신정정치와 천년왕국사상이 요체다. 제네바에서의 신정정치는 근자에 한국 개신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성시화운동'의 역사적 모델이며, 따라서 '성시화운동'은 자연스럽게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건의 '악의 제국', 부시의 '악의 축'과 같은 정치적 언술을 예로 들며 이 배경에 퓨리터니즘이라는 종교적 자원이 작용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중국의 내일을 묻다>는 금년 8월에 간행된 따끈따끈한 신간이다.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시아대외원장을 지낸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중국의 대표적 이론가, 전략가 20여 명과 인터뷰한 내용으로 짜여 있다. 화평굴기론, 중국굴기론, 천하세계론, 책임대국론 등이 실린 제1부가 단연 눈길을 잡는다.

저자는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왜 많은 사람들은 화평굴기를 대국굴기나 중국굴기라든가 동일시하는가? 왜 화평 발전이라든가 먼 것을 골기라고 하였는가?'라는 도전적 질문으로 첫 번째 인터뷰를 시작한다. 이에 대해 화평굴기론의 주창자는 '화평굴기는 대내적 조화와 대외적 평화라는 기초 아래 중국의 중장기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국가전략이며, 화평굴기를 위협적 행보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순한 의

도가 있다'고 즉답한다.

한 40대 이론가는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서구적 가치와 함께 '조화, 인, 의' 같은 아시아적 가치도 동시에 수용되어야 한다고, 나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천하세계의 입장에서 천하세계를 보아야 한다' (以天下觀天下)고 도덕경 54장을 인용한다.

또 다른 학자는 어느 사회나 자신의 가치관이 있기 마련인데 중국 사회는 아직 이러한 가치관이 없다며 "물질만능주의를 가치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개탄하면서, "종교든 그 무엇이든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과제"라고 실토하기도 한다. 중국 앞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미국, 그러면서도 미국 없는 동아시아를 희망하고 미국을 넘어 '천하세계'의 입장에서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국 지식인의 고심이 읽혀진다. 미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정치와 종교

간에 분리의 벽을 두고 있는 제도 하에서 종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국가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가치관과 종교적 집합체로서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종파적 정체성과 종파적 가치관을 넘어서는 보편종교적 또는 시민종교적 신념과 의미를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값어치 있는 대답을 얻게 해준다.

중국의 이론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는 논어, 순자와 같은 유가 경전이나 도덕경 등 도가경전에서,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의 사상과 이론으로부터 세계보편의 가치로 삼을 만한 동아시아적 가치를 현실 실천이론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체제에서의 꽃은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 작동되는 이론과 실천, 그것의 배경이 될 만한 어떤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가치와 방법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불교의 현실, 그 단면을 보는 듯하다.

G2사이에 낀 동아시아 종교의 미래 보편종교 신념 제공하는 방법 제시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문명>은 한 편의 학술논문인데, 저자는 미국 정치의 주요 이념적 배경에 대해 공화주의, 자유주의, 퓨리터니즘(청교도주의)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 중 종교적 전통은 퓨리터니즘인데 이는 칼빈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칼빈주의는 제네바에서 칼빈

다른 한편 천년왕국사상은 그리스도인이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는 관념을 낳았는데, 미국에서는 퓨리터니가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미국 정치와 외교에서의 선민의식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저자는 월슨의 메시아니즘, 케네디의 '뉴프런티어 정신', 존슨의 '위대한 사회'라는 슬로건, 레이

천도재 49재 조상영가에 효험 있는 금니옴마니반메움을 받으세요.

정음큰스님 옴마니반메움을 무보시로 드립니다.

"국내 핵심령, 천도재의 대가" 정음큰스님

정음사원 추모관 소식

정음사원 추모관에서는 남골당 2만보 조성 회향을 맞이하여 전국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남골당을 무보시로 봉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님의 이 같은 고귀한 뜻을 우리 주위의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불자들에게 연민공덕을 쌓는 기회가 되오니 밝은 지혜로 어려운 분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음큰스님께서 친필 금니옴마니반메움을 불자들에게 가정에서 무보시로 보내 드리는 것은 불자님 집안과 관련된 모든 조상영가들을 천도재 하고, 살아있는 가족들의 근심 걱정을 없애줌으로써 불자님들의 가정에 맑고 힘찬 기운을 회전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원해드리는 것입니다.



세로112 X 폭38cm

정음큰스님의 금니옴마니반메움!

죽어서 육체를 이탈한 靈은 살아생전 집착하던 자신의 업을 찾아 헤매이다 인연처를 만나면 곁잡을 수 없는 유혹에 빠져 사람이나 축생 등의 초품으로 들어가 잉태하게 됩니다. 때로는 유무주의 허공을 떠도는 귀신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가천도나 49재란 망자가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도록 靈의 마음을 바꾸는 타력천도의 법문이며, 망자가 살아생전 어리석음 속에서 한 평생을 보냈다면 필연 나쁜 곳에 태어나 고생을 할 것입니다. 특히 조상님 중 좋은 곳으로 못가지고 조상님에게 달라붙은 원귀의 영향으로 후손에게 구설과 불화, 실패와 암, 치매, 중풍 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조상영가를 천도하여 막힌 것을 뚫고, 영친 것을 풀어주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럴 때 정음큰스님의 육자진언인 옴마니반메움을 걸어놓고 마음 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천도재를 지내는 것과 같은 효험이 있으며 사업, 직장, 승진, 건강, 시험 등 매사가 잘 풀이될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점씩만 신청가능합니다. (족자별도)

- 정음사원 전국 추모관 : 청주/전주/영주/상주
- 접수처 : 080-772-0001(정음사원 추모관 건립추진위)



정음스님 약력

- 삼장법사 법의 휘득
- 심령과학영상학회 회장
- UN NGO 종교전문위원
- 대한심령수맥학회 회장
- 대체의학 활성학연구원
- 불교법사 사회교육원
- 대한초능력학회 수석부회장
- 불심령학 교수
- 대한불교정음사원 원장
- 한국정령문화연구원 원장

방송출연 검증

- MBC-신비에서 과학으로/불력과 氣
- KBS-미스터리 추적/氣의 영역
- KBS-미스터리 추적/영의 수수께끼 저주
- KBS-놀라운 TV/氣와 영역
- KBS-뷰티풀 라이프/심령의 실제·영혼과의 대화

저서

- 한국의 관음신앙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인가?
- 정신세계와 건강(비디오 출시)